

한 · 이란 상업은행간 여신관련 거래 재개

- 양국 상업은행간에는 10여년 전부터 이란측이 제기한 보증 클레임 문제가 장기간 미해결상태로 지속되어 왔으며 이란 중앙은행에서는 한국의 해당 상업은행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특별 관리하는 한편, 동국 상업은행으로 하여금 보증 및 여신 관련 등 모든 한국 상업은행과의 은행거래를 금지하여 왔음.

클레임 제기 현황

단위: 만 달러

한국측은행	이란측은행	클레임금액	비고
외환은행	Bank Tejarat	53	2001.8.15자 해결
제일은행	Bank Tejarat	44	
한빛은행	Bank Melli	88	
계		185	

- 한편, 이란 중앙은행은 한국측 보증 적격은행으로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만을 인정함. 이에 따라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이란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나 보증한도의 제한 및 Financing 위주의 지원 정책 등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높은 이자의 수수료를 물고 외국계은행을 이용하거나, 경우에 따라서 입찰참가 또는 거래추진이 무산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음.
- 따라서 동 문제는 최근 수년간 한 · 이란 최대 통상현안의 하나가 되어왔으며 한국측 관련은행의 하나인 외환은행은 한국대사관

측의 주선으로 Bank Tejarat앞 221천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클레임을 종결하기로 합의하고 2001. 8. 15일자로 Bank Tejarat 앞 합의금을 지불 완료함.

- 이 후 이란 중앙은행에서는 양국 상업은행간 거래정상화를 위한 관련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1년 말에는 이란은행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하여 해당은행간 협상을 진행한 바 있음.
- 동 협상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란 중앙은행에서는 서울은행과 클레임 문제가 해소된 외환은행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최근 동국 상업은행앞으로 동 사실을 통보하였음.
- 이번 조치로 이란 중앙은행에서 인정하는 거래적격은행은 한국 수출입은행, 한국산업은행을 포함하여 4개 은행으로 확대되었음. 2개 상업은행이 적격은행으로 추가됨에 따라 우리기업이 그 동안 겪어온 은행 관련 애로사항은 사실상 완전히 제거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으며 양국 간 경제협력 및 교역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, 이란 중앙은행에서는 상기조치를 취하면서도 미해결 클레임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측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바 이번에 조성된 은행간 협조 분위기가 지속, 고양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은행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됨.